

▶ 구제역 최초신고 수의사의 ‘재조명’

✦ ‘질병전파 매개’서 차단방역 ‘일등공신’으로

억울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길광철 수의사는 지난 1~2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질병전파 매개체’라는 손가락질은 참을 만 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가족처럼 아끼던 가족들이 땅에 묻힐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신고했나”라는 후회가 들었다고 털어냈다.

특히 “내가 방문한 모든 농장의 가축을 살처분한다고 할 때는 정말 머리가 빙그르 돌아버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길 수의사는 이번 구제역을 맨 처음 신고했다. 책에서 터득하고, 선배들로부터 배운 대로 빠짐없이 진행했다. 또한 간이키트에서 음성판정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8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었던 터라 늘 하던대로 진료행위를 했다. 그렇지만, 그 진료행위 때문에 길 수의사는 질병전파 요인으로 낙인찍혔다. 농가는 물론, 방역관계자, 심지어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그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전파요인으로 몰아붙인 역학관계자들이 미웠고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사 역시 쳐다보기도 싫었다. 길 수의사는 다만, 아는 농가들로부터는 위로전화를 많이 받았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의 주인공은 길 수의사였다. 그를 새롭게 조명했다.

이날 길 수의사는 최초신고와 더불어 구제역 확산방지의 일등공신이라는 평가 속에서 대한수의사회 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자리를 함께 한 수의사들은 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쏟아냈다. 특히 병 주고 약 주는 모양새이지만, 농식품부 역시 길 수의사 공로를 인정해 포상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번 구제역을 겪으면서 제도가 많이 보완됐다. 신고되면 검역원 등 방역기관이 즉시출동하는 태세가 갖춰졌다. 진단키트 기술에도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질병을 신고한 뒤 확진이 나올 때까지 수의사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법률이 입안됐다고 한다. 알게 모르게 길 수의사의 마음고생이 발전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3월 10일

▶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될 경우

+ 축산물 생산비 증가 '1조 원' 추정

국내 배합사료 첨가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경우 축산 생산비가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신형철 전무는 일본과학사료협회에서 발표한 '일본의 배합사료첨가제 사용금지 시 축산생산비 증가 추계' 자료를 인용, 국내의 배합사료 첨가제 전면금지 시 생산비 증가량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과학사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배합사료첨가제 사용금지 시 사료비·생산비·동물약품비·기타 증가분이 육계에서 5503억원, 산란계에서 352억원, 돼지에서 5644억원, 소에서 780억원이 늘어나 총 생산비가 1조2279억원 증가한다.

신 전무는 이를 국내 가축 사육두수비(한국/일본×100)에 적용해보면<표 참고> 육계의 경우 일본의 64%인 3522억원, 산란계의 경우 46%인 162억원, 돼지의 경우 100%인 5644억원, 소의 경우 70%인 546억원이 증가해 총 9874억원의 축산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전무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축산 패턴이 유사해 일본의 배합사료첨가제 감축에 따른 영향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비 증가분을 추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배합사료 첨가제 감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25종의 배합사료첨가제를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도 추가 감축을 계획했지만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감축을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 배합사료첨가용 항생제 감축 시 축산생산성 저하, 사료 섭취량 증가에 따른 사료비 증가, 질병치료를 위한 약제비 증가, 사료효율저하로 인한 가축분뇨 증가, 축산물 생산비 증가 등의 부정적인 분석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4월 2일